

# 국토교통부, “건설산업 국민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야” 강조 - 7일 오전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첫 회와... 중장기 로드맵 마련 공감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1월 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(이하 협의체) 첫 회의에 참석했다.
  - 협의체\*는 건설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 등을 위해 건설 분야 산·학·연·관 및 사회·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이다.
    - \* (산업계) 대한건설협회·대한전문건설협회·한국엔지니어링협회·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, (학계) 대한토목학회·대한건축학회장, (연구계) 한국건설기술연구원·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, (공공) 국토교통부(1차관), 한국토지주택공사·한국도로공사 사장, (민간) 교수 등 전문가
-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,
  - 사회공헌·청렴, 기술혁신, 근로개선, 제도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.
-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“건설산업의 경제 성장 및 산업발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,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,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”면서,
  - “업계 및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와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”고 평가하고, “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”을 강조했다.
-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문화와 품질, 기술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, 민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2024. 11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